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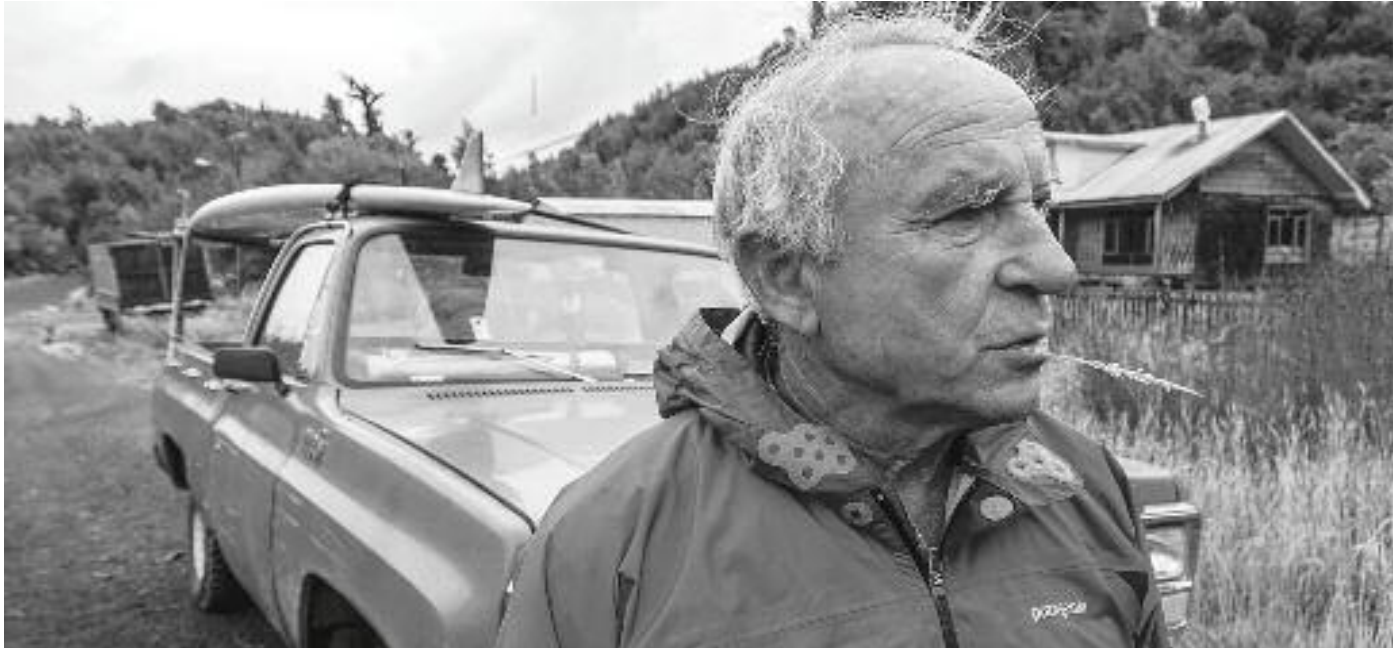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억만장자의 타이틀이 불편한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 회장, 허름한 차림을 즐겨입고 스바루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립한 회사를 통채로 기부했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기후변화 싸워달라" 회사 통채로 기부

더 이상 불편한 억만장자 아냐, 자본주의 변화해야
비영리재단, 트러스트에 30억달러 상당 지분 넘겨
1천750만달러 달하는 증여세도 가족이 납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암벽 등반가이자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83)씨가 회사의 소유권을 통채로 넘기며 증여세까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쉬나드씨 부부와 두 성

인 자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소유권을 특수 설계된 트러스트와 비영리재단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트러스트와 비영리단체는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한해 약 1억달러에 달하는 수익 전액을 기후변화와 지구 전역의 비개발 지역의 보호에 사용하도록 특

미 가구 중위소득 \$70,784, 아시아인 가구는 10만달러 넘어

아시아인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아, 흑인의 두배
미국에서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소득불평등 정도 나타내는 지니계수 10년만에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내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인종은 아시아계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내 아시아계 가구의 중간소득은 \$101,418로 백인과 소득격차를 2020년에 비해 더 벌렸다. 비히스패닉계 백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77,999이었다.

미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13일 발표한 '미국내 가구소득: 2021'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간소득은 \$70,784로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센서스의 인종별 소득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인 가구의 중간소득이 10만달러를 넘기며 가장 높았고 비 히스패닉계 백인, 히스패닉(\$57,981), 그리고 흑인(\$43,836) 순이었다.

아시아계의 소득은 지난해 \$99,622에서 1.8% 증가했으나 백인의 경우 2020년 \$78,912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히

▶4면으로 계속

KJS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노인회 지난 7일 추석잔치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지난 9월 7일 추석을 맞이하여 노스 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교회에서 송편을 빚고 노래방과 한가위 음식을 나누는 등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0대 이상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미 노인회는 정기적인 사랑방 모임과, 각종 자제 행사 및 후원 이벤트를 통해 한인 노인들의 이민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에는 한국 가든 후원으로 한미 노인회 회원들 50여명에게 울스턴에 위치한 한국 가든에서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9월 3일에는 씨코스트 국제 선교회가 한미 노인회 회원들을 초대해 뉴햄프셔 그린랜드 교회에서 랍스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순용 회장은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참여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열려있고,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기부를 할 한인분들을 찾고 있으며, 한미 노인회를 후원해주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남은 한해 동안 회원들을 위하여 추수감사절 음식 나눔과 연말 연시 이벤트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교회 (57 Peters St. N. Andover) 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지며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점심 식사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한미노인회: 978-835-9168 (한순용 회장)

bostonkorean@hotmail.com



7일 추석잔치에서 노래방 시간에 할머니들이 노래를 즐기는 모습



9월 3일 씨코스트 국제선교회가 노인 회원들을 초청해 랍스터를 대접했다



7일 추석 잔치에서 송편을 직접 빚고 있는 노인회 회원들



서울대 NE 동창회 가을 야유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뉴튼 어번데일 파크 (Auburndale Cove, 104 W Pine St, Auburndale)에서 가을 야유회를 개최한다. 동문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하며 식사로는 바베큐와 한식 맞춤요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회비는 1인당 \$20, 어린이, 학생과 포닥은 무료이다. 문의 및 RSVP는 snuaane@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Galbi (beef short ribs)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추석날 밤, 450명 한인 몰린 공연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사물놀이, 판소리, 재즈, 가스펠, 인형극 조합 독특한 경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와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이 9월 10일(토)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의 조던홀에서 약 450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조미나씨가 가스펠과 음악을 쓴 이 작품은 사물놀이와 판소리, 재즈와 블랙 가스펠, 인형극이 조합된 독



유기준 총영사(우)와 이번 공연의 창작자인 조미나씨

특한 경험을 청중에게 선사했다. 무대의 왼쪽에는 피아노(조미나)와 베이스(송미호), 한국 관악기인 태평소와 피리(이나연), 소리꾼(김보림)이 자리했으며 중앙 뒷편에는 드럼 세트(김영진)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물놀이팀(김인수, 윤여준, 성유경, 김지훈)과 색소폰(리히 하루베)이 자리했다. 3인으로 구성된 가스펠 코러스(로비 페이트, 파라비 말렉, 조셉 코플랜드)는 순서에 맞춰 등장하여 중앙에서 함께 연주하였다.

공연장 밖 복도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관객석 사이 복도를 지나 무대로 입장한 한국 사물놀이 팀의 강력한 에너지와 사운드는 시종일관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고,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 그리고 '얼씨구 좋다' 를 외치며 온몸으로 흥겨움을 만끽하였다.

소리꾼 김보림씨는 이 날 극의 해설자와 주인공 순이 역할을 소화하며 판소리 스타일의 가창, 피아노 반주에 맞춘 노래, 연기까지 다

양한 재능을 선보였다. 재즈 밴드와 색소폰, 가스펠 팀은 열정적인 합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태평소와 피리도 작은 악기에서 엄청난 사운드를 뿜어내며 앙상블에 한국적인 색채를 덧입혀 주었다. 피아노의 조미나씨는 국악과 재즈를 오가며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부드럽게 조율하고 이끌었다.

가사와 대사는 때로는 한국어를 때로는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1부는 음악과 극의 전개가 중심이 되었고, 2부에서는 상여소리와 인형극 그리고 국악팀과 재즈팀의 화려한 합주가 펼쳐졌다. 이번 작품은 조미나씨가 재즈와 국악을 접목하여 만든 두 번째 무대 작품이다. 예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창작자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며 향후 작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예술협회 웹사이트에서 티켓 신청을 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던 이번 공연에는 추석을 맞아 한국 음악을 들으러 많은 청중이 모였으



며, 한복을 입고 온 몇몇 가족들이 있어 명절 분위기가 느껴졌다.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당일 관객들에게 정성이 가득 약과 세트를 선물로 제공하여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유기준 총영사가 참석하여 교민들과 환담하고 연주자들을 격려했다.

한미예술협회는 매사추세츠 문화협의회(Mass Cultural Council)와 보스톤 재단(The Boston Foundation)의 후원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해 특별 기부를 한 김선주씨와 스테판 가벨(Stefan Gavell)씨 부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함께 아리랑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낭만과 그리움의 계절 가을을 맞아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이 오는 10월 2일(일) 메드포드에 위치한 템스대학교 그라노프 뮤직센터에서 열린다.

현재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프라노 나유선 씨와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단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으로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주역으로 많은 활동을 한 테너 김유중 씨가 출연하여 1부에서는 '그리움과 사랑'에 관한 노래를, 그리고 2부에서는 '희망과 화합'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오페라 코치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가 반주를 맡았다.

이번 음악회는 미술과 무대 예술이 함께 하는 종합 예술 공연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화가 유수례 씨의 여러 작품들이 각 노래와 짝을 이루어 스크린에 띄워진

다. 또 대사와 안무가 들어간 작품 <Reclamation(되찾기)>이 초연된다. 이 작품은 보스톤 한인 입양인 모임 (Boston Korean Adoptees)의 이사이고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 (Boston Asian American Film Festival)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인 캐시여(Kathy Eow)가 만들었다.

이 음악회에서 초연되는 또 하나의 작품은 바로 음악회의 제목이 된 <함께 아리랑 (Arirang Together)>이다. 나유선 씨가 가사를 쓰고, 노스이스턴 대학교 교수이며 한국 음악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는 작곡가 앤서니 드리티스(Anthony De Ritis) 씨가 작곡하였다. 또한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안진(Jean Ahn)의 피아노 솔로곡 <닐리리>를 연주한다.

공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며 티켓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일반 \$10, 학생은 등록시 무료). 공연장 규정에 따라 관객이 백



신 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다. 유료 주차(시간당 \$2.50)를 예약해야 한다.

<공연 정보>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
일시: 2022년 10월 2일 (토) 오후 7:30

장소: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St. Medford, MA)

티켓 및 정보: www.kcs-boston.org

후원: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The Boston Foundation, Mass Cultural Council, 재외동포재단

미 가구 중위소득 \$70,784, 아시안 가구는 10만달러 넘어

▶▶1면에 이어서
스펙나도 소폭 줄었고 반면 흑인은 소폭 상승했다.

소득은 미국내 태생이 \$71,522로 외국 태생 \$64,839에 비해 높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서부 거주민들이 \$79,430으로 가장 많이 벌었고 전통의 동북부는 \$77,472로 그 뒤를 이었다. 중서부는 \$71,129, 남부는 \$63,368로 가장 소득이 낮았다.

미국내에서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 수준이었다. 대졸자 이상의 소득은 \$115,456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학중퇴 및 전문대의 경우 \$64,378 현저하게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고졸은 \$50,401, 중졸은 \$30,378로 학력에 따라 뚜렷한 소득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센서스국은 지난해 미국의 지니계수가 0.494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계수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 불평등으로 수치가 증가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0.331로 미국에 비해 훨씬 소득이 균등했다.

editor@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p>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p> <p>\$24.99</p>	<p>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p>\$34.99</p>	<p>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p>\$39.99</p>
---	--	---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H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올 겨울 플루 극성, 플루백신 꼭 맞아야

호주 플루 극성, 최악의 플루시즌 될 수도 플루샷 10월 중순에서 말이 가장 효과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극심한 독감시즌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가을 플루백신 접종이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질병통제센터(CDC)는 미국 국민들에게 10일 이전에 플루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CDC는 웹사이트에서 9월과 10월은 백신을 접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고 10월 말까지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후에 접종해도 여전히 플루가 극심한 시즌동안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겨울시즌을 벗어난 호주에서 5년만에 최악의 플루시즌을 겪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플루가 미국도 강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브리감엔워민스병원 감염병 임상학과장인 폴 삭스 박사는 “올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 근거해 극심

한 플루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난 몇해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플루 감염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플루 인자에 대한 면역반응이 약해지게 만들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삭스 박사는 플루백신을 조금 기다려 10월 중순에 접종하라고 권장했다. “플루의 절정시기는 12월에서 2월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접종하는 것은 약간 이르다. 조금 기다려 빠르면 10월 중순 정도에 접종할 것을 권한다” 고 말했다. 너무 일찍 맞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CDC는 플루백신을 이번 오미كرون 변이 타킷 신규 코로나백신(bivalent COVID-19 vaccine)을 접종할 때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애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지난 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플루샷과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은 좋

은 생각이라 말하고 신은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셨다. 하나는 코로나 백신, 다른 하나는 플루백신을 접종하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때 플루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있다.

그러나 폴 삭스 박사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플루가 창궐하지 않는 이상 조금 기다려 10월 말까지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감염병 전문의 사브리나 애서모 박사는 전통적으로 플루백신은 10월에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맞을 수 있을 때 맞는 것이 좋으며 언제 맞는 지 타이밍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예방이 핵심이다. 10월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애시시 자 박사의 동시접종을 가리켜 “연방정부는 좀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다. 간단함이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올해 플루 백신을 접종하길 권장한다” 고 말했다.

아이메시지 발송 후 고치거나 삭제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아이폰 아이메시지(iMessage) 사용시 때론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을 경우 이제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한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지만 아이폰은 뒤늦게나마 메시지 수정 및 편집을 허용하게 됐다.

iOS16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은 마침내 메시지 앱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아이폰 소유 고객들은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해 iOS16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아이메시지를 편집하는 방법

-메시지 앱에서 방금 보낸 메시지를 탭하고 잠깐 누른채 대기한다.(tap and hold)

-팝업 박스가 뜨고 메뉴중에 편집(edit)을 누른다.

-메시지를 고친 후 블루 체크 마크를 탭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15분내에만 메시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 시간내에 수정해야 한다. 애플은 오랫동안 수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가능해 수정 가능시간을 제한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측에서는 원래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가 수정됐거나 보낸 사람이 메시지 전송을 취소했다는 노트가 남겨진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아이메시지 전송을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메시지 앱에서 방금 보냈던 메시지를 탭해서 잠깐 누른채(tap and hold)로 있다.

-팝업창이 뜨면 전송취소(Undo Send)를 탭한다.

메시지 취소나 삭제는 보낸 후 2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메시지 취소와 수정은 같은 아이폰에서만 작동하며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3년만에 첫 대면 교사연수회 성황

교육 현장 활용 중심의 강연으로 교사들 첫 대면 학기 준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2학년도 하반기 NE지역 한국학교 정기 교사연수회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주최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발전한 2세 교육을 위해 '백투노멀/Back In Person'이 주제였던 이번 연수회는 3년만에 직접 얼굴을 맞댄 행사였다.

뉴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3년만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발전한 2세 교육을 위해 '백투노멀/Back In Person'이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회는 전체강연으로 시작됐다. 첫 시간에는 박현아 간사가 '표준 교과과정 안내'를 주제로, 두번째 시간에는 오지현 강사가 'K-Kidz를 활용한 교육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세번째 시간에는 경기도 장학사이자 참샘스쿨 대표인 김차명 강사가 '앱을 활용한 고품질 영상 콘텐츠 만들기'를 강연했다.

분반강연에서는 김소희 강사(뉴잉글랜드)의 '교안 설계와 시간 활용', 권정철 강사(북부보스톤)의 '쉽고 재밌는 미술을 활용한 역사 문화수업의 이론과 실기'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2022년도 하반기 교사 연수회에는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로드 아일랜드 한인학교,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중앙교회 한글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등 모두 10개 학교의 교사들과 보

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 신임 윤성근 교육영사와 오인식 이사장, 함혜란 이총시협의회 전 이사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 오인식 이사장은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사연수회에 참가한 선생님들을 환영하며 준비를 위해 수고한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고 이어 재미한국학교 추성희 신임 총회장은 "뉴잉글랜드지역은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늘 알차고 앞서가는 협의회로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앞장서서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미주 내 14개 지역협의회를 선도해 나갈 정도로 내실있고 능력있는 협의회"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보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는 뉴잉글랜드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대면 연수 개최를 축하하며 회장단의 노고를 격려한 후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처했던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과 한인 사회는 모두 힘을 합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팬데믹에 이어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잘 이겨낼 것으로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며 알차고 효과적인 동포 2세 교육을 위해 계속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유기준 총영사가 오인식 이사장에게 교육부장상을 전달했고, 윤성근 교육영사가 협의회 박현아 간사에게 국립국어원장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리더상 수상자 호명, NKT(낙스 한국어 시험) 만점상(유세찬/뉴잉글랜드),



보스턴 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는 뉴잉글랜드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회 개최를 축하하며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뉴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강당과 교실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회 전체강연



권정철 강사의 분반강의 모습

2022 KSB(Korean Spelling Bee)대회 우수상(안유찬/뉴잉글랜드) 시상식이 이어졌고 장기근속 교사 대표로 김희현 교사(뉴잉글랜드)에게 15년 근속 표창패를, 직전 회장(이현경), 직전 이사장(윤미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2022년도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을 이

번 가을에 실시하며 행사 참가 및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교장 및 협의회 홈페이지(www.naks-n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행사 및 문의는 협의회 연락처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naks.ne.u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파타고니아 창업주 "기후변화 싸워달라" 회사 통채로 기부

▶▶1면에 이어서
수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뉴욕타임스는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입으로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번드러지게 말하고 때론 이들의 기부금액이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는 문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나드씨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부 결정에 대해 "소수의 부자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난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벤추라에 본사를 둔 파타고니아는 매년 10억달러에 달하는 자켓, 스키복, 모자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리회사로 남아 운영된다. 슈나드씨는 지난 8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으며 이 지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도록 하는 기부다.

주식 의결권이 있는 2%에 달하는 주식은 새로 설립된 파타고니아목적트러스트 (Patagonia Purpose Trust)에 넘겨졌다. 이 트러스트는 가족과 고문단이 트러스터로 회사의 운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익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쓰이는지 감독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주식 증여로 발생한 1천7백50만달러의 증여세도 가족이 직접 부담한다는 점이다.

또 나머지 98%의 주식은 홀드팩스트콜렉티브(Holdfast Collective)라 불리는 신규 설립 비영리단체에 넘긴다. 이는 파타고니아의 수익을 기부변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단체는 비영리단체이지



만 정치적 목적의 기부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501(c)(4)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100%를 기부하고 세금 한 푼 감면받지 않는 그와 그의 가족이다.

슈나드씨와 부인 말린다 그리고 40대의 두자녀는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더 이상 억만장자로 남아있지 않는 진정한 삶의 용기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

1938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난 슈나드씨는 60년대 요세미티 국립공원 암벽 등반의 선구자였다. 자동차에서 잠을 자면서 5센트에 손상된 고양이 사료용 통조림을 먹는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지금도 허름한 옷을 입고, 미국에서 저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스바루를 직접 운전한다. 벤추라와 와이오밍주의 잭슨에 있는 평범한 집을 오가며 생활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다.

1973년 파타고니아를 설립했다. 천연소재 면으로 옷을 만들고 직장 내 차일드케어를 실시하는가 하면 자켓을 구입하지 말라는 광고로 유명하기도 하다. 회사는 1%의 수익을 환경보호가들에게 기부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60년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던 시절 북한산의 암벽 등반로를 개척하기도 했던 슈나드씨는 제대 후 '슈나드 장비'라는 회사를 설립해 등산 장비를 판매하

기 시작했다. 경쟁사보다 원가가 높은 만큼 소비자 가격도 높았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다.

계속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불편해진 슈나드씨는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주변사람들과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했으며 이 선택지 중에는 파타고니아를 매각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기업공개하는 방안도 있었다. 친구의 회사인 노스페이스가 걸었던 길이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기부하는 것보다 매각이나 기업공개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 기부할 수 있었지만 슈나드씨는 매각과 기업공개 방안을 거부했다. 기업공개 시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환경보호라는 기업 문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지분을 비상장 상태로 100% 기부하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기업 문화를 지켜나가면서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이 슈나드씨의 설명이다.

슈나드 회장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내 삶을 정리하게 돼 큰 안도감이 든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었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 기사에는 연합뉴스의 기사 일부가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
hsb@bostonkorea.com



미국 차압주택수 1년 새 두배 늘었다

(LA=미주헤럴드경제) 차한승 기자 = 미국의 차압 주택 수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툰이 최근 발표한 전미 차압 주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차압 주택 수는 3만4천501채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와 118% 증가했다. 8월 차압주택 수는 4,072채 당 1채(0.025%)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일리노이가 1,926채당 1채로 전체 50개주 중 제일 높았고 델라웨어 (2,387채당 1채)와 사우스캐롤라이나(2,417채당 1채), 뉴저지(2,441채당 1채) 그리고 플로리다(2,950채당 1채)가 그 뒤를 이었다. 차압의 첫 과정인 통보(NOD)는 총 2만 2,952채로 전월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와 187%가 늘었다.

주별로는 오클라호마(80%), 테네시(74%), 버지니아(64%), 아칸소(53%) 그리고 워싱턴(50%)의

차압이 크게 증가했다. 차압 완료(REO)건수는 3,938채로 7월 대비 28%, 2021년 8월 대비 59% 늘었다.

지역별로는 일리노이(493채)와 뉴욕(337채), 미시건(326채), 펜실베이니아(260채) 그리고 캘리포니아(189채)의 차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심 지역 중에서는 캔사스시티(96%), 뉴욕(90%), 필라델피아(28%), 디트로이트(23%)의 증가 폭이 컸다.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REO의 경우 전체 (전액 현금 구매자 제외)주택 소유주 중 90% 이상이 플러스 에퀴티를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도심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수요 부족에 따른 가격 보전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어 REO 주택을 찾아보기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시카고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유에스뉴스 대학순위평가, MIT 2위, 하버드 3위

매사추세츠 대학들 미국내 최고에 다수 선정
인문대학 순위 윌리엄스, 애머스트 칼리지 1,2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미국의 맹점 드러난 대학순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학순위 계량적 수치평가
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대학들이 미
국내 최고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US뉴스 (US News & World
Report)가 12일 발표한 미국내 최
고대학 순위에서 MIT를 비롯한 7
개 대학이 상위 50위 대학에 선정됐
으며 최고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s) 순위에서는 윌리엄스칼
리지를 비롯한 6개대학이 상위 50
위에 선정됐다.

MIT는 2년 연속 미국내 최고 종
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바로 옆에 위치
한 전통의 하버드대학은 스탠포드,
예일대와 함께 3위에 올랐다. 만약
최근 대학자료제출 문제로 컬럼비
아 대학이 2위에서 18위로 추락하
지 않았다면 공동 4위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외에 텡스대학(Tufts), 보스톤
칼리지(BC), 보스톤대학(BU)은
각각 32위, 36위, 그리고 41위에 올
랐다. 예년과 비슷한 순위이지만
텡스대학은 한동안 20위권을 유지
했던 것과 달리 30위로 내려앉았다
. 이외에 브랜디스대학과 노스이스
턴 대학은 44위로 동열을 이뤘으며
유 매 스 애 머 스트 와
WPI(Worcester Polytechnic Insti-
tute)는 동열 67위를 기록했다.

- 매사추세츠 주요대학 순위
-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3) Harvard University (tie)
 - 32) Tufts University (tie)
 - 36) Boston College (tie)
 - 41) Boston University (tie)
 - 44) Brandeis University (tie)
 - 44) Northeastern University (tie)
 - 67)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tie)
 - 67)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tie)
 - 97) Clark University (tie)
 - 151) Simmons University (tie)
 - 176) University of Massachusetts-Lowell (tie)
 - 202) Springfield College (tie)
 - 234) Suffolk University (tie)
 - 234)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tie)
 - 234) University of Massachusetts-Dartmouth (tie)
 - 234)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tie)
 - 331-440)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 331-440) Lesley University
- 한편 인문대학 범주에서는 윌리엄스칼리지와 애머스트 칼리지가 나란히 1, 2위를 달렸으며 웰슬리칼리지는 5위, 스미스칼리지는 13위, 그리고 홀리크로스는 33위, 마운트

홀리크로스는 36위에 각각 선정
됐다.

매사추세츠 대학들의 인문대학
범주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Williams College
 - 2) Amherst College
 - 5) Wellesley College
 - 13) Smith College (tie)
 - 33) College of the Holy Cross (tie)
 - 36) Mount Holyoke College
 - 89) Stonehill College (tie)
 - 89) Wheaton College (tie)
 - 120) Hampshire College (tie)
 - 130) Massachusetts College of Liberal Arts (tie)
 - 151) Emmanuel College (tie)
 - 151) Gordon College (tie)
- 한편, 주립대학의 순위에서는 UC버클리 UCLA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유매스 애머스트는 텍사스A&M대학, 커네티컷 대학과 동열로 26위를 차지했다.
- MIT는 박사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의 학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12개 과목 중 6개 과목에서 1위로 선정돼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자랑했다. 박사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학의 학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니덤에 위치한 프랭클린 올린 엔지니어링 칼리지 (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가 2위를 차지했다.
- MIT는 학부 경영대학프로그램에서 UC버클리와 함께 2위를 차지했으며 경영학 분야 중 분석, 생산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MIT가 1위



를 차지했다. 기업가 프로그램에서
는 뱁슨칼리지(Babson College)가
1위를 MIT가 2위를 차지했다.

유에스뉴스는 38년째 대학순위
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500
여 대학의 자료를 분석해 순위를 산
정했다. US뉴스 2022년 봄 여름 각
학교에 설문문을 통해 총 17개 항목에
서 학업의 질을 평가해 순위를 냈다

US뉴스는 순위 산정에 있어 학
업의 질은 물론 졸업율, 보유율, 졸
업 후 부채비율, 신분변동 등의 결
과적 측정을 강조했다. 올해에는
어떻게 SAT 점수를 계산하는지,
교수진, 범주내 순위변경 등 좀더
포괄적인 방법을 새로이 채택했다.

특히 올해 순위 선정에서는 잘못
된 통계자료를 제출했던 컬럼비아
대학이 18위로 밀리는 해프닝이 발
생했다. 컬럼비아 대학 소속 교수

의 폭로로 통계자료의 문제점이 지
적되자 대학 측은 올해 순위에 불참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US뉴스 측은 문제로 지적된 자
료 대신 교육부 등 외부통계자료를
통해 최종 순위를 산정했다.

그러자 이번 통계자료의 문제점
을 폭로한 테디어스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의 대학 평가
가 조잡하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
라며 "한 대학이 1년 만에 2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면, 이는 전체 순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프닝으로 인해
1위부터 100위까지의 대학의 순위
는 숫자상의 순위일 뿐 실제 그 격
차는 숫자의 의미만큼 크지 않다고
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한자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다보면, 허리 어깨 목 할 것 없이 빠근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의자 하나면 있으면 아무리 뻣뻣한 사람도 부담없이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단단한 의자 하나만 준비해주시구요, 최근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지금 바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Yoga Song Hayeon 에서 9min Full Body Stretches for Relief from Sitting All Day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 Supported Triangle Pose (삼각자세 변형):
어깨, 옆구리, 안벽지 스트레칭
1단계 의자를 앞에 두고 사진과 같이 오른 발을 앞에 둔 상태에서 오른 손을 뻗어줍니다. 이때 옆구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척추와 팔을 길게 펴주세요!



손이나 팔꿈치를 의자에 올려놓고 다른 팔을 천정으로 뻗어줍니다.

3단계 팔을 천천히 의자 등받이 방향으로 보 내 옆구리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4단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 후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TIP! 사진처럼 팔꿈치가 잘 닿지 않는 분들은 손바닥을 의자에 올려놓고 진행해주세요. 단 허리부터 정수리까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2. Downward Dog Stretch (다운독 스트레칭):
가슴, 어깨, 뒷벽지, 종아리 스트레칭

1단계 앞의 스트레칭이 끝나면 두 손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두 발을 뒤에 두고 엉덩이를 올려 가슴과 어깨전면을 늘려줍니다.

2단계 가슴을 두 허벅지 사이로 보낸다고 상상하며 상체를 열어줍니다.

3단계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고 깊고 길



게 호흡합니다.

TIP! 다리 뒷면이 많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숨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홈트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하연쌤과 함께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

- 트레스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 2.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 4.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유튜브도 못보는 라이브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교정도 받고 싶다면?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신청하고 싶어요. '가죽의 다이어트 요가&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디디 yogafitnesslife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필라테스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it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it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it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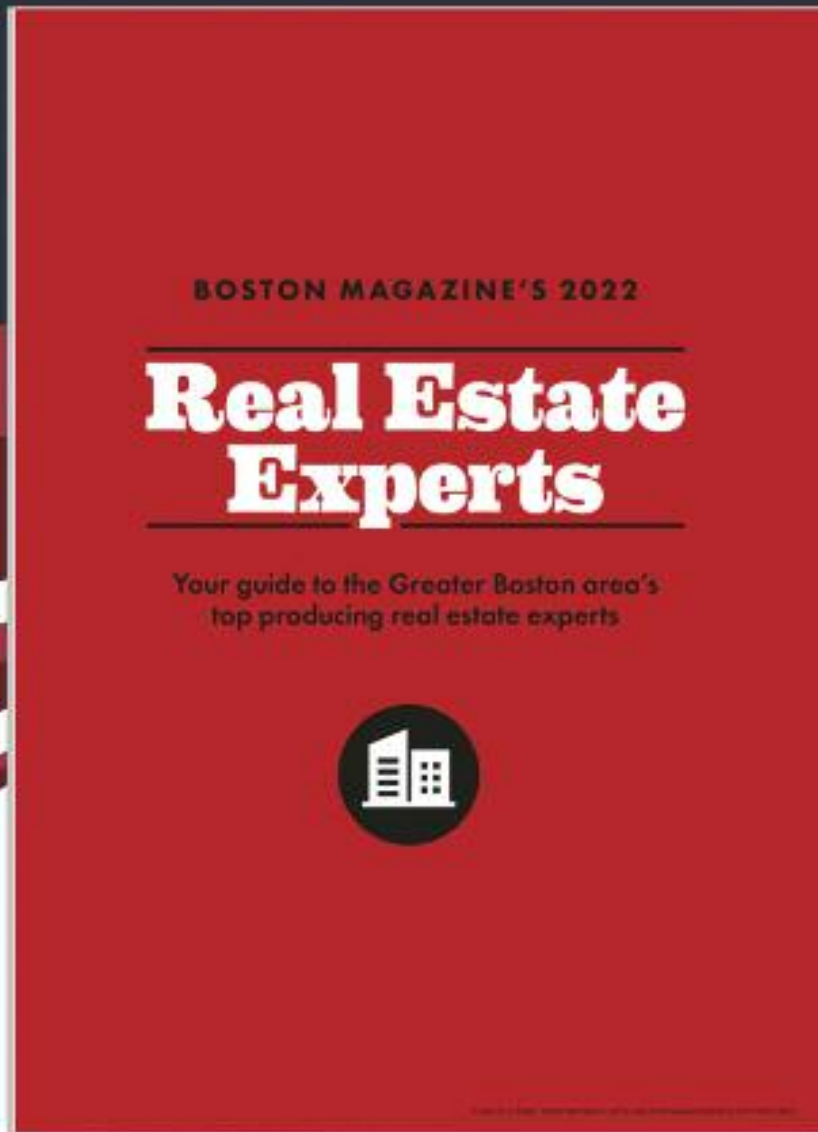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ason@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relia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매사추세츠 주지사 여론조사 모라 힐리 크게 앞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1월 총선거를 8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모라 힐리(Maura Healey) 검찰총장이 공화당 후보인 제프 디일(Geoff Diehl)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특히 힐리 후보는 트럼프즘을 혐오하는 여성들과 무소속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격차를 벌렸다.

서푼대학/보스톤글로브/NBC10 보스톤/텔레문도가 잠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리 후보는 디일 후보를 52퍼센트 대 26퍼센트로 앞섰다. 힐리 후보는 무소속 층에서 9%나 앞섰다.

특히 500유권자들의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아직 주지사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17%의 유권자 층 중에서 절반 이상은 트럼프에 반감을 표시했다.

공화당 디일 후보는 트럼프즘을 표방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의 성향

이 공개되는 경우 현재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잠재 유권자 층의 절반은 디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내는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는 검찰 총장, 주무장관 등 주요 직책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커다란 리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주민 투표 중 부유층의 백만장자세금에 찬성의견(56대 35)이 높으며 불법 이민자 운전면허 허용안에는 신규법안 유지 측(49대 38)에 찬성표가 많았다.

민주당 후보인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지난 4월과 7월에 치러진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 이후 여성들의 표심은 훨씬 모라 힐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첫 여성 주지사를 거머쥐게 될 힐리에게 여성 유권자들은 60대 20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매사추세츠주가 진보적인 주로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그동안 중도 성향의 공화당 주지사를 줄곧 선출하기도 했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점차 각 정당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보였다. 힐리 후보는 민주당 유권자 층에서는 14대 1, 디일 후보는 공화당 유권자 층에서는 4대 1

의 득표율을 보였다. 중도 성향의 공화당 소속인 베이커 주지사는 여전해 76%나 지지세를 보였고 민주당 유권자 10명중 8명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48%가 긍정 43%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검찰총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앤드레아 캠펬 후보는 공화당 제이 맥마흔 후보를 50대 24퍼센트로 앞섰다. 윌리엄 갬빈 현 주무장관은 공화당 도전자인 라일라 캠펬를 53대 19퍼센트로 앞섰다.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중간선거 앞 바이든 지지율 탄력...두달새 9%p 급등 조사도

각종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도 7월 바닥 찍고 5%p 안팎 올라
상·하원 선거 전멸 예상됐지만...상원은 민주당 우위 전망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심판 격인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 1~13일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14일(현지시간) 기준 42.4%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1일 36.8%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시점과 비교해 두 달도 못 돼 지지율이 5.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치분석 매체 '538'이 취합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기준 42.2%로 최저치인 7월 21일 37.5%에서 4.7%포인트 올랐다.

이런 흐름은 개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지난 9~12일 성인 1천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약 두 달 전(7월 14~17일) 조사 때 36%에 비해 무려 9%포인트나 올랐다.

바이든 지지율은 작년 1월 취임 이래 한동안 50% 초·중반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욕스러운 미군 철군과 맞물려 곤

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는 반도체산 업육성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집권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굵직한 법안이 의회를 연달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3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다소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있다.

AP통신 조사에서 38%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으로 통했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 1·6 폭동 진상조사특위가 지난 6~7월 공개 청문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는 등 민주당 지지층이 싫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사이익이 됐다는 시각이다.

AP는 주요 법안의 통과, 대법원의 낙태권 후퇴 판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강화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바이든 지지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AP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바이든 지지율은 78%로 7월 65%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바이든 지지율은 5%에서 1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중간선거 판세 전망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

8미 모기지 금리, 2008년 후 첫 6% 돌파

'538'은 이날 기준으로 민주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71%로 공화당(29%)보다 높게 잡았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72%로 더 높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6일 분석 기준으로 상원 선거전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 상태라고 봤고, 하원의 경우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매체들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며 의회 권력을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AP는 민주당은 여름철 몇달간 중간선거 참패 가능성에 직면했다면서, 일련의 입법적 성과를 달성한 이후 이 전망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주택 수요는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대출 잔액 64만7천20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6.01%로 집계됐다.

전주 5.94%에서 소폭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선을 넘었다고 MBA는 밝혔다.

MBA에서 경제·산업 예측을 담당하는 조엘 칸은 "30년 고정 모기지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벽을 넘

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 신청량을 측정하는 지표인 MBA의 '시장종합지수'(MCI)는 전주보다 1.2% 하락한 255로 집계됐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이는 199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기에는 MCI가 707.9에 이르렀다.

주택 매수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0.2%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29% 감소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신청 건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에게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미 보훈부와 농무부 등 정부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좋은사람들
www.juney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사람들
www.juneye.co.kr
성모안과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인플레이 감축법에 배터리 재활용사업 투자 몰려...SK도 가세

아이폰 미니 없애고 플러스모델 출시...프로·프로맥스 기능개선 799달러 애플워치 울트라 출시...3년만에 2세대 에어팟 프로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인 어센드 엘리먼트(이하 어센드)는 최근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와 재규어 랜드로버 등으로부터 3억달러(약 4천182억원)가 넘는 자금을 투자받았다.

독자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센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5억달러(약 6천974억원)가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어센드는 미 조지아주 코빙턴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켄터키주에서는 10억달러(약 1조3천943억원)를 들여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J.B. 스트라블이 이끄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이하 레드우드)도 투자 유치와 함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레드우드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피델리티, T.로 프라이스 등으로부터 40억달러(약 5조5천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 7억7천500만달러(약 1조80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레드우드는 현재 35억달러(약 4조 8천900억원)를 투자해 네바다주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부품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다.

상장업체인 라이사이클(Li-Cycle)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적 광산업체 글렌코어로부터 2억달러(약 2천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라이사이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뉴욕,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뉴욕주 로체스터 공장에 이어 오하이오·앨라배마주와 노르웨이, 독일에도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라이사이클의 시가총액은 12억달러(약 1조6천735억원) 정도이다.

WSJ은 환경문제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배터리용 광물을 생산하



웨스트보로의 스타트업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어센드 엘리먼트(Ascend Element) 재활용 공장

는 신규 광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IRA까지 발효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배

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해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4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오크론리 어센드 최고경영자(CEO)는 IRA 발효로 핵심 배터리 물질의 국내 조달이 시급한 과제라며 고객과 벌이는 협상의 분위기가 자칫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THE PRO REALTY GROUP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환율 장중 1,397.9원, 연고점 경신...당국 개입에 1,393.7원 마감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19일 이후 최고치 마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15일 원/달러 환율이 1,397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외환당국의 개입에 반락하며 1,393원대에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2.8원 오른 달러당 1,3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출발한 뒤 오전까지 1,39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오후 1시 5분께 1,397.9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는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으로,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증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 3월 19일(증가 기준 1,396.0원) 이후 최고치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 110선에서 움직이다가 이날 109선으로 내려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아시아장에서 달러가 반등세를 보이며 원화도 약세를 이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쪽으로 과도한 흔들림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환율이 1,400원 턱밑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은 해당 발언 이후 1시간여 후인

오후 1시 10분께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외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내 흔들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391.0원까지 저점을 낮추며 반락했다. 이후 장 후반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며 1,393원대에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구두개입 직후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점심시간에 호가가 얇은 틈을 타 당국이 구두개입과 함께 실개입한 것 같다"면서 "평상시보다 개입의 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입 시점을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의 '도시락 폭탄'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도시락 폭탄은 금융위기 당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주로 점심시간에 이뤄지면서 나온 말이다.

점심시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물량이 적어 개입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당국 경제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천장을 확인한 기관들의 물량이 매도세로 돌아섰다"면서 "당국 역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방향성 전환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1.2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67.85원)에서 3.35원 올랐다.



15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 증가가 나오고 있다. 2.8원 오른 1,393.7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3년 5개월여 만에 1,390원대를 돌파했다.

금리인상 여파에...서울 실거래지수 13년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월 들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급급매물만 드물게 팔리면'서 실거래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6월)보다 3.14% 하락했다.

이는 2008년 12월 5.84% 하락한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면서 2006년 1월 실거래가 지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4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매물은 늘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매

수세가 위축되고 집값 하락 우려도 커지면서 직전 최고가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낮춘 급급매물만 겨우 팔린 결과다.

서울 5대 권역 중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의 실거래지수가 5.25%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이 3.86% 내려 그 뒤를 이었다.

은평·마포·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3.62%)과 강남 4구의 동남권(-3.28%)도 3% 이상 하락했다.

영등포·양천·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만 0.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의 7월 매매 실거래가 지수도 각각 2.98%, 4.22%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3.20% 떨어졌다.

수도권 실거래가 지수 하락폭 역시 2008년 12월(-5.0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2.21% 떨어져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이 역시 2008년 12월(-3.55%)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지방(-1.11%)과 지방 광역시(-1.73%)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은 지수가 6.90% 하락했고 광역시는 대전(-2.27%), 광주(-2.10%), 대구(-1.83%), 부산(-1.61%), 울산(-0.66%) 순으로 낙폭이 커졌다.

지금까지 신고된 거래가로 추정된 8월 실거래가 잠정 지수도 서울이 1.50%, 전국이 1.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ms@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16th - AUG. 22nd,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SAY CHEESE TO KOREAN SPICY PORK RIBS!

These Korean pork ribs are spicy but when they're smothered with gooey mozzarella cheese and corn, they become perfectly balanced. With tender pork ribs that'll fall straight off the bone and chewy rice cakes as well, this spicy recipe will meet every expectation you have and more!

매콤한 양념과 부드럽게 녹아있는 치즈의 조화가 환상인 매운 돼지 갈비찜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섀골드 키위 BOX \$22.99	DAEWOONGSAN Aged Black Garlic 대웅산 흑마늘 7.05 OZ/PKG \$8.99	Stem Tomato 스템 토마토 LB \$1.49	Pickled Cucumber & Eggplant 오이 & 가지 절임 15.98 OZ/PKG \$3.99	Kabocha Danhobak 단호박 LB \$1.49
Guava 구아바 LB \$3.99	GUAN'S Ginkgo Nut 구안스 은행 진공팩 3.5 OZ/PKG \$1.49	Seafood Mushroom 씨푸드버섯 5.3 OZ/PKG \$2.4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LB \$1.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9.99	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99	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소삼겹 양지 SLICED/LB \$12.99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SLICED/LB \$6.99	Frozen SEOUL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냉동 서울순대 1.5 LB/PKG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Baby Octopus 쭈꾸미 LB \$5.99	Roast Dried File Fish Fillet 구운쥐치포 13.4 OZ/PKG \$12.99
Frozen Head-on Shrimp 머리새우 30-40 SIZE/LB \$5.99	Frozen Striped Bass 농어 500-800 SIZE/LB \$4.99
Frozen Busan Kamaboko Fishcake Soup 부산 가마보꼬 어묵탕 1.1 LB/PKG \$3.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KYONG GI ME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39.99	CJ Hetbahn Cooked White Rice CJ 햅반 7.4 OZ X 12 EA/BOX \$12.99
NONGSHIM Chapagetti 농심 짜파게티 4.48 OZ X 16 EA/BOX \$17.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궁중당면 골드 1.5 LB \$2.99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39.99	SAMYANG Samyang Ramen 삼양 삼양라면 4.23 OZ X 5 EA/PKG \$4.99	HAIO Beef Short Rib/Bulgogi Marinade 해오름 소갈비/소불고기 양념 1.85 LB \$4.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7.99	HAIO Hot Pepper Paste with Vinegar 해오름 초고추장 17.63 OZ \$2.99
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동우 얼짱 쭈꾸미 1.43 LB \$15.99	BEYOND THE OCEAN Fried Fish Cake 바다너머 부산어묵 1.76 LB \$4.99	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ek) 유동 자연산 플랭크 캔 14.1 OZ \$6.99	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9.74 OZ (12 EA/PKG) \$2.99	ORGANIC FARM Chestnut Roasted 유기농장 까먹는 군밤 5.29 OZ 2\$3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 FL OZ X 6 EA/PKG \$6.99	HELLO HOME Women's Ruby Slippers 헬로홈 여성용 루비 슬리퍼 S/M/L - \$4.99 PAIR \$2.49	WANGTA Toothbrush 왕타 칫솔 세트 STONE/ MINI PASTEL - \$15.99 \$11.99	OSEQUE Outdoor Vita Toning Patch 오세크 아웃도어 비타 토닝 패치 - \$15.99 SMALL - \$17.99 LARGE \$7.99 \$8.99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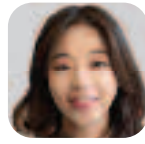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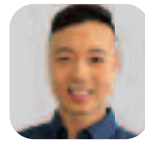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and NY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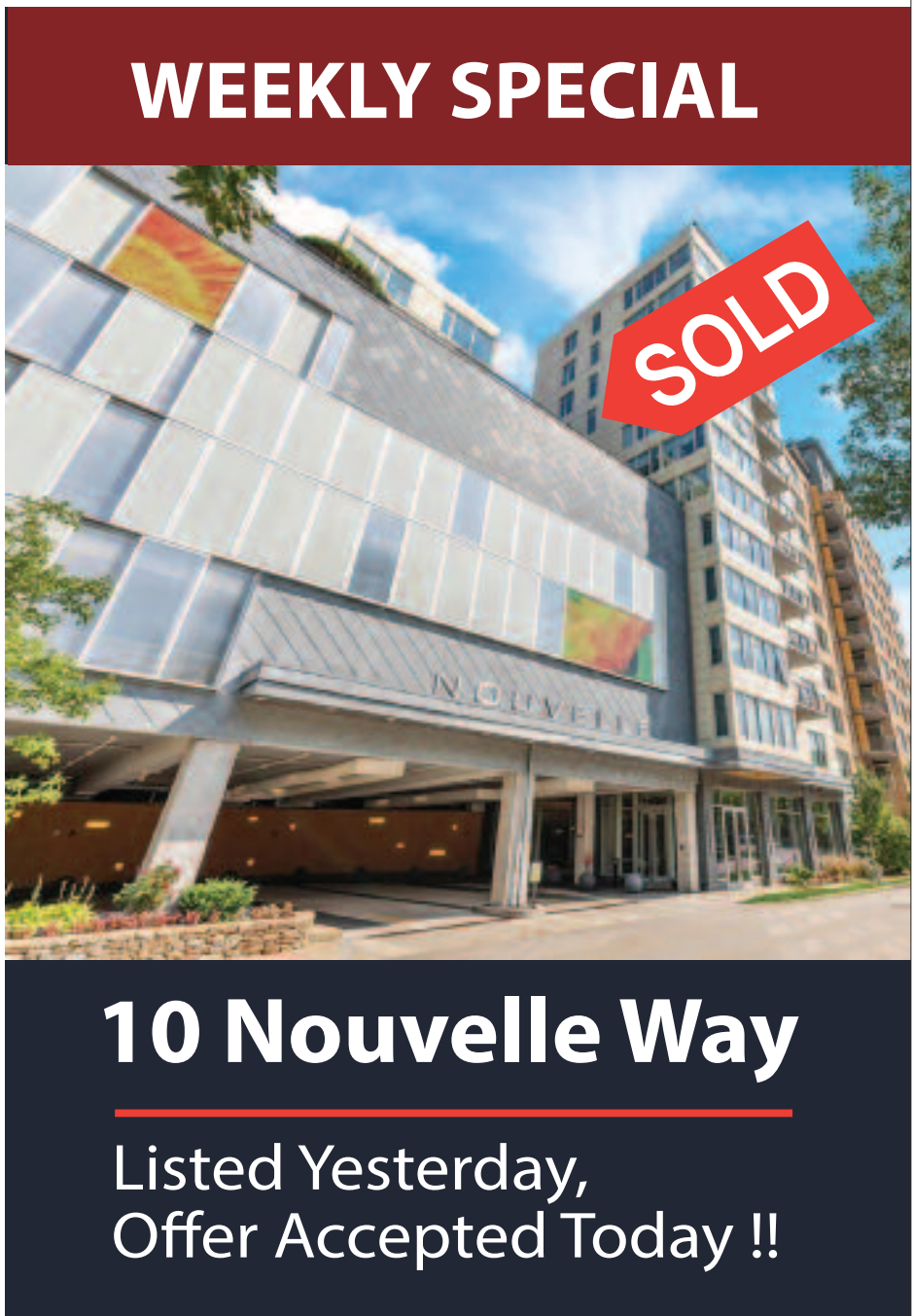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당신의 올스타에게 자신감을 높여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5세 이상이라면 COVID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여러분과 자녀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는 한국연립은행의
정부보증 수속을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Daveluy Church of the Nazarene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The KCSB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주최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나유선
소프라노 & 기획

김유중
테너

이지영
피아니스트

KATHY EOW
공연가

유수례
화가

ANTHONY DE RITIS
작곡가

티켓: KCSBOSTON.ORG

일반 \$10 학생 무료

10월 2일 (일) 저녁 7시반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ST. MEDFORD, MA

COVID 백신 카드 필요 / 주차 시간당 \$2.50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02) 뉴스와 주식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시장은 한순간의 소식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경험을 한다. 연준 의장이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뉴스에 투자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반응은 투자자가 야구 시합에서 2회까지 나온 점수로 시합 결과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다.

투자에 관한 미디어(방송, 신문, 인터넷, 등)는 투자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전달한다. 방송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나온 주식 전문가가 ‘순간적인 뉴스에 동요하지 말고 장기 투자 하라는 따분한 조언’ 을 한다면 이것이 미디어에 마지막 초청이 될 것이다.

투자자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 금리와 주가의 방향, 전쟁의 영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어떤 개별 종목의 전망, 주식

시장의 과대평가 여부, 경제는 어느 방향인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등 끝이 없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보니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는 투자에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

팬데믹 시작과 함께 집에 머물며 정부에서 퍼놓은 돈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당시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 역시 끊이지 않았다. 남이 돈을 번다고 하니 본인만 손해 보는 것 같아 주식에 입문한다. 투자자는 일시적인 투자 수익 결과를 같은 비율로 미래에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열심히 계산(Extrapolation)해 본다. 또한, 본인이 투자하는데 어떤 능력(Overconfidence)과 감(Feeling)이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만들고 투자자에게 투자 지식과

정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S&P 500)은 1930년부터 2020년까지 수익이 18,000%로 증가했다. 그런데 그중 주식시장이 가장 높게 상승했던 단 10일 동안 나의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익은 28%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 은행(Bank of America)의 연구 결과이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10일이 언제인지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

투자 예측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해도 이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예측해야 투자가 재미있고 머리(?)를 써야지만, 투자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예측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우연히(Luck)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뿐이다. 우연은 반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진다.

연준의 결정, 기업의 재정, 등을 열심히 분석해도 우리가 더 나은 예측을 할 것이라

는 증거는 분명히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빔을 먼저 쬐어야 하는지,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주택융자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지, 보험이 필요한지, 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상품의 진실이 무엇인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신용 등급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등을 계획하고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금융 생활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주식 시장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다.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동요 없이 자그마한 자금을 꾸준히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6세 풍월주風月主 진공眞功(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를 편찬한 김부식은 그가 영웅호걸이라서 3권이나 할애했는지, 아니면 김부식의 방대한 기록에 의해서 김유신이 후대에 더욱 대영웅으로 각인되었는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신채호가 ‘조선상고서’ 에서 김유신을 평가한 것처럼 인식하거나, 그가 이룩한 업적을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지만, 화랑세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당시의 풍월주들은 김유신에 비해 급기는 많은 무장들이 간재했음을 볼 수가 있다. 다만 김부식은 왜 김유신에게는 3권이나 할애했으면서도 그와 ‘용호상박’ 할 수 있었던 많은 무장들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기록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에 관한 기록이 대단히 방대하지만, 화랑세기를 읽지 않고는 그의 결혼과 부인, 자녀들에 대한 완벽한 퍼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

먼저 김유신의 결혼을 보면, 삼국사기에 655년 왕 김춘추의 딸 지소智昭와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다(“왕이 딸 지소를 대각찬 유신에게 시집보냈다” -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거울 10월조). 왕도 아닌 신하의 결혼 내용을 기록한 김부식은 김유신을 과격적으로 대접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은 당시 60세에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어린 딸(자신의 생질녀甥姪女이기도 하다)을 부인으로 맞았다. 하지만 당시 김유신에게 부인이 있었는지, 사별을 했는지, 미혼이었는데 대한 아무런 기록은 없다.

이어서 삼국사기(김유신 열전)에 기록된 김유신의 자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내 지소부인智昭夫人은 태종대왕의 셋째 딸이다. 아들 다섯을 낳으니 맏이는 이찬 삼광三光이고 다음은 소관 원술元述이며, 다음은 해간海干 원정元貞이고, 다음은 대야찬 장이長耳이며, 다음은 대야찬 원망元望이다. 딸은 넷이다. 서자庶子로 아찬 군승軍勝이 있는데, 그 어머니 성씨는 전하지 않는다. 뒤에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거친 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위의 인용문으로 보면 김유신이 환갑년에 23세의(401) 지소공주를 아내로 맞아 5남4녀를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딸들의 이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데, 화랑세기에서 그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화랑세기에 김유신은 열 여덟살이 되던 해인 건국建國29년 임신년(612년)에 15세 풍월주의 위에 올랐다. 그리고 동년 만호태후(진평왕의 어머니)의 명으로 하종공의 딸 영모와 결혼하였다. 만호는 김유신의 외조모이고, 하종은 미실의 아들로 영모는 미실의 손녀이다. 화랑세기에는 만호가 미실을 위로하려고 영모를 손주며느리로 맞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김유신의 첫부인 영모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없고 다만 화랑세기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역설적에게도 화랑세기 필사본이 진본을 필사했음을 반증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유신이 환갑이 되도록 미혼이나 독신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와 천관녀와의 사랑이야기 역시 그가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401) 삼국사기(신라본기, 성덕왕11년, 서기 712년) 에 보면 “가을 8월에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夫人으로 봉하고 해마다 곡식 1천섬을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는 김유신이 죽은지(673년 졸) 3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소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런데 부인으로 봉할 때는 무슨 기념을 할만한 특별한 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유신의 예로 보았듯 그가 환갑을 맞은 해에 무열왕이 딸을 아내로 맺어 주어 그를 위로하였다. 이렇듯 712년에 성덕왕이 지소를 부인으로 봉하고 큰 재세財賜를 내림은 분명 지소에게는 특별한 해였음이 틀림없다. 그녀는 김유신과 65년에 결혼했으니 이때는 이미 5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소가 이때 환갑이었다면, 세 살 때 김유신에게 시집갔다는 계산이 되기에 아마 이때 지소가 팔순이었을 것이다. 즉 지소는 631년(또는 632년생) 으로 23세에 김유신과 결혼했다. 지소의 나이를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 김춘추가 602년생, 어머니 문희가 606년생(으로 고증 가능), 오빠인 문무왕 김법민이 626년생, 둘째 오빠 김인문이 629년생, 세째 오빠 김문왕의 출생년은 미상이다. 그리고 지소가 631년 경에 태어났다고 추측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김달복과 부인 김정희(김유신의 동생) 사이에는 딸 흠신과 아들 흠돌과 흠운이 있었다. 흠신은 이미 보로전군의 아내가 되어 두 딸을 낳아, 그들이 성장하여 혼인 적령기에 이르렀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풍채가 출중하고 용감한’ 풍월주 진공이었다. 진공 또한 그녀를 좋아했기에 그의 성정의 일부인 ‘기묘한 꾀’ 를 내었다. 사람을 시켜 보로에게 흠신은 병이 있으니 빨리 버리고 다른 여자로 아내를 맞는 것이 좋겠다고 꼬드겼다. 보로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흠신을 버리고 김유신의 딸 작광酌光을 아내로 맞이 하였다. 그리고 곧 흠신은 진공의 아내로 들어가 화랑의 화주가 되었다.

작광은 김유신의 셋째 딸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화랑세기에만 나온다. 작광 뿐만 아니라 장녀와 차녀 그리고 넷째 딸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궤적도 함께 등장한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딸이 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환갑년에 맞이한 부인 지소의 소생(인 것처럼)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모두 50권이고 마지막 10권은 열전이다. 그 열전 중에서 김유신에 관한 기록은 무려 3권(권41~43)을 차지한다. 과연 ‘삼한의 영웅’ 다운 방대한 기록이다. 삼국사기

CUCKOO

가을이 오면

쿠쿠하세요

기간 | 08.30.2022 - 09.28.2022 조건 | 기간 내 주문 & 9월 내 설치

ALL

1. 일시불 구매 시 **10%** 할인!
2. 비데 또는 버블 클렌저 추가 구매 시 **50%** 할인!

렌탈/구매
수량별 혜택

혜택 하나

3대 렌탈/구매 시
쿠쿠 IH 압력밥솥 증정
*프리미엄 제품 1대 포함 필수



\$590
상당

CRP-JHSR0609F | 6인용

혜택 둘

2대 렌탈/구매 시
쿠쿠 압력밥솥 증정



\$260
상당

CRP-RT0509FW | 5인용

혜택 셋

1대 렌탈/구매 시
쿠쿠 제빵기 증정



\$150
상당

CBM-AA6101S

안마의자
런칭 혜택

혜택 넷

4D 안마의자 렌탈/구매 시
쿠쿠 LED
마스크 증정



\$800
상당

LUD-AM106W

혜택 다섯

3D 안마의자 렌탈/구매 시
쿠쿠 초강력
공기청정기 증정



\$375
상당

CAC-K1910FW

혜택 여섯

안마의자 렌탈 시
다운페이
\$500 면제



\$1,000
할인

CMS-G1013D 안마의자 | CMS-H1014D 안마의자

\$2,000
할인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동원, 개우자 & 동원 렌탈 & 동원 설치처 필수
사은품 포기 신청 시 동일 가격대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사은품 관련 댓글과 문의등의 추가 구매와 5%는 유상 제공
구매 후 7일 내 설치 또는 반품 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프리미엄 제품 : 정수기 SM-TN-TVFM/KNACW/FB/CF 크레, 공기청정기 DVF 모델, LED 마스크 프리미엄 모델, N95 프리미엄 헤파필터,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 세면기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가족 이민이란 무엇인가요?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특정 가까운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과정입니다. 가족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으로 이민하는 것과 두번째는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 이민 조건:

"직계 친척"이란,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직계친족"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가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계 친족" 자격을 갖추려면, 청원하는 미국 시민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우대제"에 따른 이민 조건:

친척이라면 Family Preference System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및 기혼 성인 자녀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자 및 성인 자녀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

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으로 이민하는 것과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하는 것의 장단점:

미국 시민의 "직계친족"으로 이민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시민의 직계친족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나 할당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의회는 가족우대제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연간 숫자 제한 또는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우대제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면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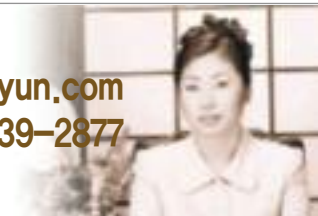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 9월 2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p> <p>●운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평평하게 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본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애정: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만족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3일 주의.</p>	<p>소띠 긍정적인 결과가</p> <p>●운수: 평소에 잘 이어온 관계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얻는 것이 크겠습니다. ●금전: 행운이 따라주는 시기이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애정: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표현하세요. 생각보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4일 주의.</p>	<p>범띠 확인부터 해야</p> <p>●운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금전: 세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싸다고 사들이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애정: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할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1일 주의.</p>
<p>토끼띠 마음을 가다듬고</p> <p>●운수: 미리 앞서서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현실에 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해지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금전: 과욕은 금물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애정: 부딪칠 일이 생겨도 잘 피해야 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모로 살펴봐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1일 주의.</p>	<p>용띠 관계회복에 도움이</p> <p>●운수: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밝은 전망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여유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은 그 덕을 보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애정: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때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뱀띠 즐거운 마음으로</p> <p>●운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것이 다 풀리는 것을 느낄 정도로 속이 시원해지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여유가 생기고 웃게 됩니다. ●금전: 매상이 나아지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나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말띠 솔직하게 말해야</p> <p>●운수: 갑자기 소낙비를 맞은 것이라 생각하세요. 날씨 탓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누구 탓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 지금까지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 시간을 끌수록 마음의 짐이 더 커집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양띠 더 큰 것을 얻게 되니</p> <p>●운수: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갑니다. 짧은 기간에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것을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되니 무난하게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상대를 만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원숭이띠 기획의문</p> <p>●운수: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음은 활기분해질 것입니다. ●금전: 좋은 때를 기다려도 사람에게 드디어 기획의문이 열립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애정: 조금만 더 관심을 두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행여주는 행동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해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닭띠 감정조절을 잘해야</p> <p>●운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일이 나한테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열 받지 않게 감정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금전: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애정: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p>	<p>개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p> <p>●운수: 어설피게 아는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금전: 특별히 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거나 분투기에 휩쓸려서 후회하는 지출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상이 감지됩니다.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돼지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p> <p>●운수: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금전: 주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애정: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4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셰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4/15
로건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시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오징어게임' 에미상 축하 쇠도... "K-문화 정말 어마어마"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수상하자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오징어 게임'은 12일(현지 시간) 제74회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앞서 시상식이 이뤄진 부문까지 합쳐 총 6관왕에 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인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이정재를 향한 인사가 줄줄이 이어졌

다. '오징어 게임'에서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알리 역을 맡았던 아누팜 트리파티는 "이정재 선배님이 에미상을 수상해 올해의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언제나 제게 동기 부여를 주고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내용을 영어로 올렸다.

코미디언 김신영은 "에미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 K-문화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SBS 드라마 스페셜 '달팽이'(1997)에서 이정재와 연기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오지혜는 "시작부터 스타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오르는 건가"라고 축하했다.

이정재가 수장인 아티스트 컴퍼니에 소속된 배우 염정아는 이날 열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기자회견에서 "이정재 이사님의 에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도 이날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주역들과 활짝 웃

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외신도 '오징어 게임'이 역사를 새로 썼다며 높이 평가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배우 이정재가 이번 에미상 시상식을 완전히 휩쓸었다(take the Emmys by the storm)"며 "'오징어 게임'으로 그는 일약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과 이정재가 에미상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했다.

BTS 정국 '레프트 앤드 라이트' 빌보드 싱글 역주행 롱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손잡은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순위 역주행을 이뤄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핫 100'에서 전주 대비 10위 오른 37위로 집계돼 11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정국과 찰리 푸스의 음색이 잘 어울린 청량한 팝 장르의 노래로, 전 세계 여름 음악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노래는 '디지털 송 세일즈' 9위,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12위, '팝 에어플레이' 14위, '어덜트 컨템퍼러리' 29위, '라디오 송' 31위, '글로벌'(미국 제외) 32위, '글로벌 200' 37위, 캐나다 핫

100' 37위 등에 올랐다.

멤버 진·지민·뷔·정국이 베니 블랑코·스눅독과 협업한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는 '핫 100' 90위에 올라 5주 연속 차트인했다.

이 노래는 '디지털 송 세일즈' 6위, '팝 에어플레이' 27위, '글로벌'(미국 제외) 68위, '글로벌 200' 69위, 캐나다 핫 100' 85위 등으로 기록됐다.

방탄소년단은 이 밖에도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119위,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165위, '버터'(Butter) 195위 등에 이름을 올렸다. 또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다이너마이트' 89위, '마이 유니버스' 102위, '버터' 134위로 각각 집계됐다.

리더 RM이 피쳐링으로 참여한 바밍 타이거의 '섹시느낌'



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31위였다.

슈가가 피쳐링과 프로듀싱에 참여한 사이의 '댓댓'(That That)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4위를 기록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91위로 13주 연속 진입했다. '프루프'는 '월드 앨범' 차트에서도 2위에 올랐다.

tsl@yna.co.kr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5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진짜 멋진 수수함 속에 있음을...

가끔 지나는 길에 뒤돌아 다시 보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수함에 끌려서일 게다. 요즘은 별 것마다에 끼워 넣고 명품 명품 하는 그런 명품이 아니어도 좋다.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흘렀을 뿐일 게다. 그렇다, 굳이 애써 꾸미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음에 배인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단아한 모습일 게다. 제아무리 명품을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들었어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면 남의 것을 빌려 입고 두르고 쓰고 신고 든 것 같은 모습인 것을 말이다. 멋은 자연스러워야 더욱 멋지지 않던가.

사람마다의 개성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양각색으로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개성이 어우러져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굳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식의 방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싶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의 형편이 가질만해서 선택하는 것이면 좋으련만 남을 의식해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고 허욕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자신

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을 신어야 제일 편안한 것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무엇이든 내게 어울려야 편안한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을 방문하면 도착하는 그 날부터 한국인의 나이별 유행이 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곤 했었다. 오가는 남녀의 옷도 옷이러니와 여자들의 화장 역시도 비슷비슷한 모습에 자신만의 개성 없이 우르르 따라 하는 식의 멋 내기가 내게는 참으로 쓸쓸하게 다가오곤 했었다. 어쩌면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먼 곳에 살다가 한번씩 찾아가기에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유행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어울리는 멋을 찾는 것이 센스이지 않을까.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 이처럼 나를 모르니 남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던가. 삶에서 가끔 나 자신의 내면을 한번씩 들여다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남을 의

식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속의 허함이 어쩌면 아우성치다 참을 수 없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늘 허기지고 맥이 떨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은 아닐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공적인 것은 마음의 평온함보다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치장하고 꾸민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불안한 것처럼 균형이 필요하다. 옷이든 사람이든 간에 조화를 이뤄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자신에게도 그러한 거니와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편안함을 주어 좋다. 눈에 보이는 밖의 치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연스러움이란 내면의 것이 차오르면 저절로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진짜 멋진 수수함에 있음을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올라서야 깨달아 간다. 어려서는 남을 의식하고 많이 살았다. 결혼해 연년생으로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이 많

이 썩 탓에 몸의 살을 뺄 생각보다는 몸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모른다. 키가 작은 편이니 신발 굽이 높은 것을 늘 찾고 신었으며 남을 의식하며 한껏 멋을 냈었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며 하나둘씩 나의 치장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것이 그럴 것이 산을 오르면 살찐 것을 감출 수도 없거니와 등산화를 신으며 작은 키를 더는 키울 수 없는 까닭이었다.

옛말에 '항 썩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썩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제아무리 밖으로 치장하고 한껏 멋을 내도 그 안의 것은 자신이기에 내면의 것을 감출 수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밖의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의 것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에 오르고 보니 더욱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난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멋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를 순수한 나를 그대로 놔두고 흐르는 데로 바라다봐 주는 일이 진정한 멋이고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인공위성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수학에서 노벨상이라 했다. 필드상이던가. 올해엔 한국인 교수가 받았단다. 대단한 경사일텐데 확실한건 자연과학이며 공학이 기본이다.

1968년 일게다. 한국시간으로 저녁이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고 착륙했다. 이어 암스트롱은 달표면에 첫발을 디뎠고, 발자국을 남겼다. 찌직이는 흑백티비 화면을 통해 나역시 어렵듯이나마 볼수있었다. 우리집에도 티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시간 우리집 안방과 마루는 동네어른들과 아이들 덕에 몹시 붐볐다. 해설은 돌아간 조경철박사가 맡았다. 일품이었고 구수했는데 선생이 던붙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달나라에 갈 날이 오겠지요'

한국에서도 인공위성을 날려 올려보냈다. 일차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발사라고 했다. 한국신문 일

면 타이틀이다.

누리호 '우주의 문' 열었다...
韓 세계 7대 우주강국 (중앙일보)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됐다 (조선일보)

우리 힘으로 '하늘문' 열었다...
우주 개발 독립 꿈 (동아일보)
누리호, 우주에 오르다 (한국일보)

우주위성 누리호號 이름이 순 한국말인데 누리는 세상世上이란 뜻이다. 누리호를 쏘아 올린 곳은 나로 우주센터라고 했다. 그럼 나로는 무슨 말인가. 항구나 나루터를 말하는 걸까. 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가?

쏘아 올린 누리호는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실에서 개발했다. 과정이야 무척 어려웠을 터.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항우연(航空宇宙院)은 미국·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협력을 추진했

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엔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러시아는 국가 핵심기술을 일부라도 팔아야 했던 거다. 어디 항공우주 산업뿐이라. 조선업도 있을 것이고, 한창 각광받는 분야는 반도체라 했다. 빨리 배웠고, 연구개발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다. 이 분야 역시 자연과학이며, 돈을 벌어오는 건 공학이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더 키울 방안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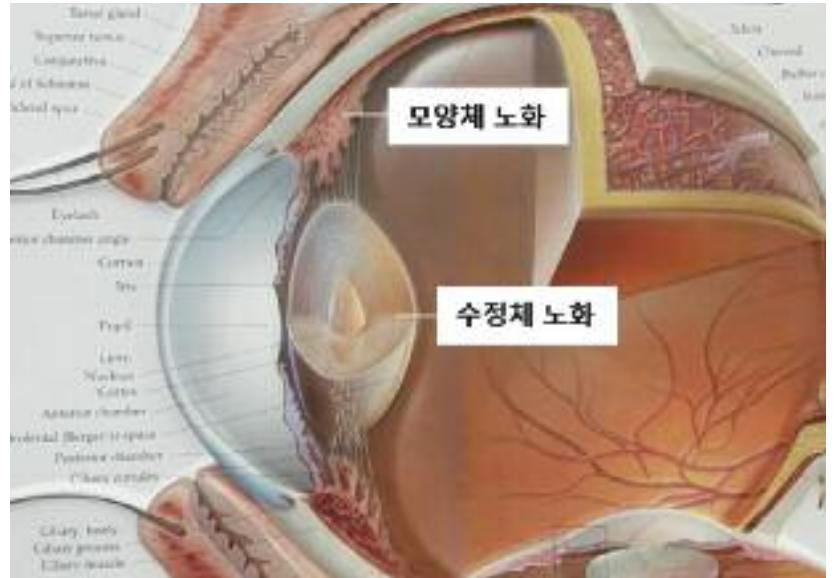
이른 새벽이면 보인다. 남쪽 하늘엔 주황색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거다. 그건 별이 아닌 인공위성이라 나 혼자 지레 짐작한다. 이젠 누리호 인공위성도 새벽하늘에서 보이려나?

하늘의 별들고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사야 13:1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안 수술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좋은사람들성모안과 박 성진원장의 도움을 받아 40대 이상이 되면 많이들 호소하는 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0대에 라식라섹 시력교정수술이 있는 것처럼 노안의 나이가 되면 노안교정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은 보통 나이가 들어 가까운 거리의 초점이 잘 안 맺히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노안이란 눈의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노안은 어떤 증상이 있을지요?
노안의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고 가까운 글씨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가까운 곳을 보게 될 때 눈에 힘을 주게 됩니다

또한 눈이 쉽게 피로하고 어두운 환경이나 목이 피곤하면 시력이 저하됨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경우에 노안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고 먼 거리가 흐려지거나 안개 낀 듯 뿌연 증상 그리고 건조해지는 등 눈의 노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안과 함께 백내장, 녹내장, 망막변성 등 고위험 안질환의 유병률 또한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안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정확한 노안교정 수술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한 시력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눈의 전체적인 부분을 검사하는 눈 종합검진을 통해 노화의 정도와 내 눈에 적합한 노안 치료 및 수술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안은 왜 오는 것일까요?
노안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면서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못할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초점 맺는 것이 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둘째는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점점 딱딱해지고 뿌옇게 변하게 되면서 딱딱해진 수정체로 인해 초점이 빨리 맺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안의 해결 방법으로는 현재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돋보기나 안경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레이저 교정, 단초점 모노비전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술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돋보기 또는 다초점 렌즈 안경을 이용하여 근거리와 원거리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 방법으로 레이저 교정이나 모노비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은 한쪽은 원거

리 다른 한쪽은 근거리 교정 수술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므로 불편함이 사라지기도 하나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백내장 치료와 함께 3초점 또는 4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시야를 잘 보이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듯 노안교정 수술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안교정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로 환자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 또는 개인별 질환 여부 파악, 그리고 눈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함께 고려해 줄 수 있는 안과 의료진을 찾는 것.

둘째 수술 집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으로 다양한 노안교정 수술 방법과 다양한 렌즈 선택으로 수술 후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풍부한 수술 경험은 수술 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술 장비나 검사 장비 또한 국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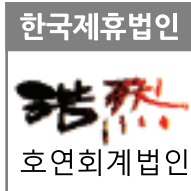
표준에 맞는 최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이후 불편해진 노안 증상으로 비수술적인 노안 교정 수술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밀한 안 종합검진을 통해 내 눈 상태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노안 교정 수술법을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노안 교정 수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안 수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p>상안검 or 눈썹하거상술</p> <p>187만원 154만원~</p>	<p>하안검 + 지방재배치</p> <p>187만원 154만원~</p>	<p>안면거상술 +목거상</p> <p>880만원 660만원~</p>			
<p>이마 거상술</p> <p>495만원 330만원~</p>	<p>코 성형</p> <p>363만원 264만원~</p>	<p>지방이식 +PRP</p> <p>330만원 220만원~</p>	<p>가슴성형</p> <p>660만원 550만원~</p>	<p>지방흡입</p> <p>220만원 ~</p>	<p>이물질 제거</p> <p>110만원 ~</p>



“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순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성현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성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외과대학 졸업 라보성형외과		최연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민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재현 대표원장 외과대학 졸업 리본뷰티메디칼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팀장

★ 미주, 캐나다 무료전화 (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 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 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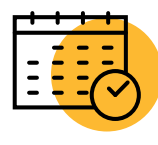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